(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1 (2022. 10.), 353-384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2.10.51.353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민현식*

1. 머리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의 필요성

오늘날 언어 환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급변하였고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언어 환경이 크게 변하였다.[1)]

*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중세국어 시간부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 본 논문은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국어학적 의의", 박동현, 민현식, 이두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해설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117-160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한국인의 언어 의식의 변천은 매 5년마다 나오는 국립국어원(2005, 2010, 2015, 2020)의 『국민 언어 의식 조사』 참고(양명희, 『200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05]; 양정환 외,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0]; 김창영 외,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5]; 김창영 외,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20]). 청소년의 언어 실태와 언어문화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부터 매년 나온 언어 실태 조사 보고서가 있다. 참고, 양명희, 이정복, 박호관,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 (서울: 국립국어원, 2005); 장경희 외,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1); 민병곤 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6); 정혜승 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7). 그 밖에 청소년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M. A. Nippold, *Language Sampling with Adolescents* (San Diego: Plural Publishing, 2010); 김은성, "신문기사의 청소년 언어문화 재현 양상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4 (2014), 61-100; 김은성,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 실천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2015), 383-424; 정혜승,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과 향상 방안", 「한글」 319 (2018), 135-163. 니폴드(M. A. Nippold)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언어 발달은 구문·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 구문론적 발달: 문장의 길이와 복잡도 증가(종속절, 주어 후치 수식, 수동태, 접속어의

(1) 1990년대 컴퓨터 인터넷 웹 기반 사회로 진입하고 2000년대 휴대폰 모바일 앱 기반 사회와 빅데이터 인공 지능 시대로 급변하는 이른바 4차 산업 혁명기에 들어서 성경 읽기 문화도 인공 지능(AI)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2) 방송 매체도 라디오 시대에서 TV와 모바일 시대로 변하고 신문 매체도 인터넷 언론과 다매체 융합 시대로 변화하면서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 이제 성경이나 설교는 과거처럼 듣기, 읽기만의 시대를 넘어 영상으로 보는 다매체 융합 시대가 되었다.

(3) 한자 교육의 퇴조로 국민의 한자 문맹이 급증하여 100년 전 옛말체인 '-라' 종결체와 한자어의 비중이 높은『개역개정』(1998)은 젊은 세대에게 읽히기 어려워 새로운 성경 번역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현대인과 젊은 세대를 위해서『새번역』(2001)과 같은 현대어 번역본이 여럿 존재하지만 이들은 종결체만 '-다'로 바꾸었을 뿐『구역』(1911),『개역』(1938)의 한자어와 같은 어휘가 그대로 남아 새로운 문체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맞아 언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기존 성경 번역본의 난해함을 개선하려면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번역본이 필요하다. 이제는 한자 문맹 세대를 위해,『새번역』(2001)에서도 관습상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했던 '유월절, 번제, 소제, 속건제' 등과 같은 난해 한자어를 대신하여 고유어 중심으로 획기적 대체어를 만드는 어휘 갱신의 번역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2011년 성경 완역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11년 12월 '성경번역연구위원회'가 조직되고, 201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한성서공회의『새한글성경』번역 사업의 번역 지침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위원회, 2012.8.24).[2)]

사용 증가)

○ 의미론적 발달: 비유적 언어사용 증가(관용구, 은유 및 직유, 속담 및 속어), 유머 위트, 풍자 활용 증가, 고차적 어휘 사용 증가(추상 명사, 접속 부사, 메타인지 동사, 과학 용어, 형태론적으로 복잡한 구성의 파생어 등)

○ 화용론적 발달: 또래와의 대화 빈도 증가, 전자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 빈번, 대화, 이야기, 설명적 담화, 설득적 담화 등에서 고른 발달 양상을 보임.

특히 청소년기는 구어적 면에서 또래와 '이야기하기'(talking) 그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 김은성,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 실천의 사례 연구",「국어교육연구」36 (2015), 387.

2) 이후 2012년 12월부터 각 교단 성서학자 36명이 함께 본문을 번역, 검토하였고 국어학자 3명이 이를 읽으면서 본문을 다듬었는데, 필자도 국어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1) 번역 지침

다매체(multimedia) 시대의 우리말 사용자를 고려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하며, 최신 학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1세기 한국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경건 생활에 바탕이 될 성경을 번역한다.

(2) 번역 특징

① 원문으로부터 새롭게 번역하되, 한국 교회의 예배용 성경의 번역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② 인쇄 매체만이 아니라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반포하는 데도 적합한 번역이 되도록 한다. 전자 매체로 본문을 제공할 경우에 읽기에 좋게 의미 단위로 줄바꾸기를 할 수 있으며, 인쇄본보다 더 풍부하고 더 많은 참고자료(관주, 각주, 용어해설, 사진, 그림, 지도, 동영상 등)를 제공한다.

이런 지침과 방향으로 지난 10여 년 각고의 번역 끝에『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2021년 12월 첫선을 보여, 이에 대한 국어학적 특성을 분석해 그 의의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이후에 비판적 검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옛말체의『개역개정』(1998)과 현대어체의 최근본인『새번역』(2001)과 비교하여 어휘론적, 문장론적, 담화론적, 표기론적 관점에서 어떤 특성을 보여 주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3)]

---

3) 필자는『새한글성경』발간 사업에 국어 책임자로 관여해 왔기에 본고는 시범 견본으로 나온『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특성에 대한 압축적 보고서 성격을 띠기도 하며, 구체적인 상세 보고서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것이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활발한 비판도 이루어져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성경 번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기존 번역본들에 대한 국어학 관점의 비판적 평가가 있었는데『개역개정』(1998)과『새번역』에 대한 박영환의 평가가 주목된다.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28 (2011), 226-247; 박영환, "『성경전서 새번역』의 국어학적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30 (2012), 121-139.

박영환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에서『개역개정』마가복음 부분을 분석하였는데 형태 구문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정서법적 측면으로 비판하였다.

형태 구문론적으로는 '-께서'가 오면 '예수'보다 존칭 접미사 '-님'이 첨가된 '예수님'이 낫고, 2인칭 대명사 '당신'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임은 부적절하며, 겸양법에 따라 '나'나 '우리'를 '저'와 '저희'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이르되'도 손윗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는 점을 든다.

의미론적으로는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모두 쉬운 한자어나 고유어로 바꿀 것, '자(者)'를 '사람'이나 '이'로 바꿀 것, '외식', '변형'보다는 '가식', '변모'가 낫다고 하였다.

2. 어휘론적 의의: 고유어 풀어쓰기 중심 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추구한 가장 근본적인 번역의 방향과 원리는 현대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점이다. 그동안『개역개정』(1998)이 옛말체 경전체의 전통을 이어가며 사랑받았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현대어에 충실하면서 현대 소설의 이야기를 읽듯이 현대문체로 편집해 읽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새번역신약』(1967)부터 이 현대화 작업이 시작되어『새번역』(2001)에 이르렀는데『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이런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어휘 표현을 대거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마가복음’과 ‘시편’의 사례로 살펴본다.[4)]

2.1. 마가복음의 어휘론적 의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기존『개역개정』과『새번역』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가급적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찾아 쓰거나 새말을 만들어 번역하여 한국어의 지경을 넓히도록 하였다. 지면 제약으로 다음과 같이 막 1:1-8만 전문을 대조하고 9절부터는 주요 단어 표현만 발췌해 대조하여 본다.

> 『개역개정』 복음을 전파하다
>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정서법적으로는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문장 부호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영환은 “『성경전서 새번역』의 국어학적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에서도『새번역』을 위의 방식으로 분석 비판하고 있는데, 정서법적으로 문장 부호 도입을 잘한 일로 평가하면서 쉼표가 너무 자주 사용되어 독서에 방해가 되며, 접속 부사 뒤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4)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간결한 복음서로서의 대표성과 1:2부터 구약 이사야 예언서의 인용이 나와 인용 문제를 곧장 다룰 수 있기 때문이고, ‘시편’은『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구약은 시편만 다루었기에 대표적으로 다룬 것이다.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새번역』 세례자 요한의 선포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8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다

1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4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5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6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7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 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8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다음에 구체적 번역 표현 유형을 밝힌다. 숫자는 성경 원문 절 숫자이고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순서로 제시한다.

ABC 2 사자 > 심부름꾼 > 소식꾼
ABC 2 길을 준비하리라 > 길을 닦을 것이다 > 길을 마련할 것이야

ABC 3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ABC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위 4절은 B를 A의 유사 구조로서 A′로 보아 AA′C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형태 변화가 많아 ABC 유형으로 보도록 한다. 『개역개정』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하여 죄 사함의 전제는 '회개의 세례'라 하였는데 '회개의 세례'는 '회개'와 '세례'의 선후 관계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새번역』도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하여 '회개의 세례'는 『개역개정』대로 유지하였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라고 번역하여 '회개 → 세례 → 용서 완성'의 단계를 명확히 보여 주었다.

ABC 5 죄를 자복하고 > 죄를 고백하며 > 죄를 털어놓았다

'자복(自服), 고백(告白)'은 모두 한자어인데 고유어 '털어놓다'를 씀으로써 우리가 죄를 마지못해 고백하거나 숨겨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모조리 숨김없이 탁 털어놓게 되어야 함을 실감 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AC 6 낙타털 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표현은 단순하게 '옷을 입고'라는 표현보다 중동의 의복 관습에 어울리는 '걸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움을 보여 준다.

AAC 6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띠를 띠다'는 '신을 신다', '춤을 추다'와 같이 동족 목적어 관용구이지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라고 하여 새로운 표현을 썼다.

ABB′ 6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들꿀: 사전 미등재어.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들꿀'을 유대 지역에 서식하는 공격성이 강한 야생벌이 만든 꿀로 설명하고 있다.
들-벌:「명사」야생의 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야생벌의 통칭인 '들벌'을 활용해 '들벌의 꿀' 즉 '들벌꿀'로 번역하였다.

『개역한글』(1961)
6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개역한글』(1961)에서는 낙타를 옛말 '약대'로 번역하였고, 들벌꿀은 '석청'으로 번역하였다. 옛말 '약대'는『석보상절』,『월인석보』 등[5]에도 나오는데, '약대'는'낙타'(駱駝/駱駞)와 차용어 관계로 보인다.

新共同譯(1987)
6 ヨハネはらくだの毛衣を着 丶腰に革の帯を締め 丶いなごと野蜜を食べていた 。
官話和合譯本(1919)
6 約翰穿駱駝毛的衣服 丶腰束皮帶 丶喫的是蝗蟲野蜜 。

일본 <신공동역 성경>(1987)은 '석청(들벌꿀)'을 '野蜜'로 번역하여 직역하면 '들꿀'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들꿀'은 미등재 상태이지만 한자어 '야밀'(野蜜)은 등재되어 있다.

AA′C 7 능력 많으신 이가 > 더 능력이 있는 이가 > 더 힘 있는 분이
ABC 7 신발끈을 풀기도 >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 샌들끈을 풀어 드릴 만한 사람도

'신발끈'은 기존에 '신들메'로 나왔던 표현이『개역개정』에서부터 '신발끈'으로 바뀌었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중동 모래바람 풍토에 쓰인 신발이라는 의미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 익숙한 '샌들'을 활용해 '샌들

5) 약대: 약대어나 라귀어나(석보상절 9:15), 약대와 라귀와(월인석보 23:72). 駝 약대 타(훈몽자회 상 19)

끈’으로 하였다.

> AA′C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8절은 어휘로는 AA′A″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통사 구조 차이로는 AA′C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기존 번역본들과 달리 도치형 구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원어 어순을 한국어 어순으로 기계적 전환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원어의 어순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같은 문장 성분의 위치가 가지는 효과를 한국어 번역문에서도 살리기 위해 원어의 어순을 번역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도치 어순이 되는데, 초점이 되는 성분의 어순을 그대로 한국어 번역에서도 살리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국어의 보편적 어순은 아니라 논란도 예상된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마가복음 1장 사례들은 한국어의 표현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깊이 고심한 사례가 많아,『개역개정』및『새번역』과 차별된 AAC나 AA′C 유형이 많은데, 이는 한국어의 표현 세계를 새롭게 넓히는 번역을 시도하였음을 보여 준다.

2.2. 시편의 어휘론적 의의

『새번역』(2001)은 현대문체로 번역하여 종결 어미 수준에서는 전통적 ‘-라’체를 ‘-다’체로 전환하였으나, 어휘 차원에서는『개역개정』(1998)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나온『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새번역』을 약간 다듬는 번역이 아니라 모든 어휘 표현을 고유어 중심으로 새로 찾아 바꾸어 완전히 환골탈태한 현대어역 성경이 되었다. 다음 시편 1장[6]을 보자.

> 『개역개정』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

6)『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 시편은 기존 1편, 2편 식으로 부르던 것을 1장, 2장 …으로 다른 성경 장절 체제와 동일하게 하였다.

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새번역』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4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6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1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3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4 그릇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5 이런 까닭에 그릇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6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사람들의 길은. 그릇된 사람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위를 보면 『새번역』은 『개역개정』과 표현에서 유사하다. 대부분의 단어가 큰 변화 없이 존속하였고, 단지 서사문 종결 어미에서 『개역개정』은 『구역』(1911)의 전통에 따라 옛말체 '-더라, -니라'체이고, 『새번역』은 현대어 '-다'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하여 '복 있습니다'처럼 하십시오체로 하거나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처럼 해요체로 하여 하나님께 대화의 간구를 하는 시편 장르 특성에 맞게 생동감 있게 번역하였다.[7] 예전에는 해요체가 여성어법으로 더 쓰였으나 오늘날은 여성어를 넘어 남성어로 특히 청소년층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남녀 구분 없이 쓰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전체적으로 현대어와 청소년어의 핵심 문체인 해요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7)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 천주교주교회의 『성경』의 대화문 종결형에서도 나오지만 서사 종결형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다음은 어휘와 문장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자.『개역개정』(A),『새번역』(B),『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C)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어휘 문장 차원에서 표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A > B > C' 표시처럼 예시해 둔다. 숫자는 해당 절을 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어휘와 문장 표현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특히 한자어를 대신해 고유어로 풀어 쓰는 표현이 늘어나게 된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A(『개역개정』) > B(『새번역』) > C(『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 변화를 보면 번역 표현의 지속과 변화 유형이 다음 유형으로 나타난다.

ABC: 세 역본의 번역이 모두 다른 경우.『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을 지향함

AAA: 세 역본의 번역이 모두 같게 유지된 경우

AAC:『개역개정』의 번역을『새번역』이 유지하고『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다른 표현을 택한 경우

ABB:『개역개정』과 다른『새번역』의 표현을『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채택한 경우

ABA:『개역개정』과『새번역』이 다른데『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개역개정』을 채택한 경우

그런데 이들은 A, B와 유사한 일부 변형 사례도 나타나, 이 경우는 A′, B′로 표시하여 번역 과정에서 국어 표현의 유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끔 했다. 아래에 시편 1장에서 주요 어휘 표현의 변화 사례를 찾아본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개역개정』을 존중해 답습한『새번역』의 번역 방향을 따르는 쉬운 길보다 가시덤불에서 보석을 찾듯이 전면적으로 새로운 번역의 어려운 길을 택했기 때문에 AAC 유형 또는 AA′C 유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개역개정』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새번역』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1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AA′C 1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AA′C 1 죄인들의 길 > 죄인의 길 > 죄짓는 사람들의 길
AA′C 1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 오만한 자의 자리에 >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위의 번역 유형은 AA′C의 유형을 보여 준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기존 번역을 답습하지 않고, 성경 원문의 의미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표현과 다르게, 고유어 중심, 단문 중심으로 새로운 표현을 찾아 쉽게 풀어 쓰도록 하였다.

시편 1장을 보면 문장 수효로는『개역개정』은 5개 문장이고[8],『새번역』은 6개 문장인데,『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10개 문장으로 늘었다. 이는 풀어쓰기의 효과를 살리면서 간결성도 높이고자 여러 문장 단위로 끊어 분절화했기 때문이다.

풀어쓰기 번역은 기존 명사들에서도 나타난다. '죄인'을 '죄짓는 사람'으로 풀어 썼고, '악인 – 의인'의 반의어 번역을 '그릇된 사람 – 올바른 사람'으로 풀어 썼다. '오만한 자'도 기존 번역 의미를 살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양심을 잃어버려 교만한 자를 의미하도록 고유어 '비웃는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번역』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2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AAC 2 율법 > 율법 > 가르침
ABC 2 주야로 > 밤낮으로 > 낮이든 밤이든
AA′C 2 묵상하는도다 > 묵상하는 사람이다 > 소리 내어 읽습니다

8) 시 1:4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의 '아니함이여'를 감탄 종속절로 보아 1개 문장이라 생각했으며, 시편 1장을 총 5개 문장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4절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와 같이 전반부를 독립 감탄문으로 보면 4절은 두 문장이 되어 시편 1장은 총 6개 문장이 된다.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인데 ‘율법, 율법책, 가르침’을 뜻하여 한자어 ‘율법’의 엄중함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고유어 ‘가르침’으로 번역하였다.

한자어 ‘주야’는 ‘주(낮)+야(밤)’의 어순이지만 우리말은 ‘밤낮’이 자연스럽다. 히브리어 원문은 ‘낮’을 앞세웠기 때문에『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도 ‘낮이든 밤이든’으로 히브리어 어순을 살려 번역하였다.

‘묵상하다’는『개역개정』의 난외주에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붙어 있고, 외국 역본에서도 ‘홀로 소리 내어 읽다, 중얼거리다, 읊다, 낭송하다’로 번역하여『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묵상을 묵독으로 발전시켜 유대인들의 소리 내어 읽는 전통을 살려 ‘소리 내어 읽다’로 번역하였다.

> 『개역개정』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새번역』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3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
> AAC 3 시냇가 > 시냇가 > 물길 곁
> ABA′ 3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 잎사귀 마르지 않는
> ABC 3 형통하리로다 >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

‘시냇가’가 익숙한 번역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자연으로서의 시냇가’가 아니라 사람이 일부러 파 만든 인위적 물웅덩이나 물길 곁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부러 물을 파서 물길을 내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물길 곁’으로 번역하였다.

‘형통’을『새번역』에서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으로 완전히 풀었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젊은이들이 통상 사용하지만 다소 세속적 의미로도 비치는 ‘성공’이란 단어를 도입하여 성속(聖俗)의 구분을 두지 않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였다.

『개역개정』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새번역』
4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4 그릇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ABC 4 바람에 나는 겨 >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 바람에 흩날리는 겨

위는『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이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 B의 절충형을 취하였기 때문에 C로 분석하였다.

『개역개정』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새번역』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5 이런 까닭에 그릇된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AAC 5 그러므로 > 그러므로 > 이런 까닭에
ABA′ 5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ABC 5 모임에 들지 > 모임에 참여하지 > 무리에 들지

다음은 '악인, 죄인, 의인'의 번역을 살펴본다.

AA′C 1, 4, 5, 6 악인들 > 악인 > 그릇된 사람들
AA′C 1 죄인들의 길 > 죄인의 길 > 죄짓는 사람들의 길
AA′C 5, 6 의인들 > 의인 > 올바른 사람들

1절과 4절에 이미 나왔고 5절과 6절에도 나오는 '그릇된 사람'의 반대말로 5절과 6절에 '올바른 사람'이 나온다. 이 두 번역어는『개역개정』과『새번역』의 '악인'과 '의인'을 순우리말로 풀어 쓴 것이다. '죄인'은 '죄짓는 사람'으로 풀어 썼다.

‘의인, 악인’에 대해서 기존 번역에서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의(義)’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맺는 관계이고, ‘정의’는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법치에 불평등과 불의가 끼어들지 못하게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공의’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측면이라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성경의 ‘의, 정의, 공의’는 기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얽혀 있는 유기적 관계이다. 이것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한자어의 장점이지만 유기적 관계는 밝혀 주지 못한다. 이를 통합하는 통칭의 의로움은 고유어 ‘올바른’이 가장 적합하여 의인을 ‘올바른 사람’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 반대말로 ‘그릇된 사람’을 썼다.

> 『개역개정』
>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 『새번역』
> 6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6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사람들의 길은. 그릇된 사람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
> AA′C 6 인정하시나 > 인정하시지만 > 알고 계시거든요
> AA′C 6 망하리로다 > 망할 것이다 >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은 어린 자녀가 ‘아버지께서’ 대신 ‘아빠가’로 친근하게 대하듯 ‘여호와께서’도 친근하게 ‘여호와가’로 하였다. ‘망하다’라는 직설적 표현 대신, 결국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다.

2.3. 성경 전문 용어(성막, 절기, 제사 등)의 간이화

구약에서 중요한 내용이 성막과 절기, 제사 관련 규정이다. ‘유월절’(踰越節) 또는 ‘과월절’(過越節)은 한자어로 다음 세대에게는 어려워, 이번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예수셩교젼셔』가 ‘넘ᄂᆞᆫ졀’로 번역한 정신을 살려 성경용 신조 합성어 ‘넘는명절’로 번역하고, ‘넘는명절(유월절)’처럼 기존 용어를 괄호 병기하여 혼란을 막도록 하였다. 성막 관련 용어도 새로운 시도를 하여 ‘휘장, 등잔대, 성소’도 ‘나눔막, 등불받침대, 거룩한곳’으로 풀어 쓰고 기존 용어를 괄호로 병기하였다.

<표1> 성막 관련 용어의 변화

책 장절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유형
마 27:51	휘장	휘장	나눔막(휘장)	AAC
히 9:2	등잔대	등잔대	등불받침대	AAC
히 8:2	성소	성소	거룩한곳(성소)	AAC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 나오는 제사 관련 주요 용어는 난해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기를 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2> 제사 관련 용어의 변화

책 장절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 유형
히 10:8	번제	번제	다태우는제사(번제)	AAC
히 10:8	속죄제	속죄제	죄없애는제사(속죄제)	AAC
시 20:3	소제	제물	곡식제물(소제)	ABC
딤후 4:6	전제	부어드리는 제물	붓는제물(전제)	ABB′

이처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쉬운 용어나 풀어쓰기 용어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풀어쓰기가 기존 한자어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낯설어 보이나, 다음 세대를 고려하면 쉬운 우리말로 의미를 전달하고 한국어 고유어의 개념 능력을 확장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감수할 만한 방안이라 하겠다.

3. 문장론적 의의: 속독 속해를 위한 단문 중심 번역

『개역개정』은 '…하고 …하야 …하니 …' 식 흐름의 고소설체와 문어체 성격을 띠고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대체로 내용이 압축적이며 여러 절이 이어진 중문, 복문이 많아 문장 길이가 길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현대어로 번역할 때는 『새번역』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문장을 보다 더 짧게 끊어 번역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1문장(1발화) 50자 16어절 이내'의 번역 지침을 세웠다. 이는 현대인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단문 발화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 소통의 주류가 장문을 기피하고 단문과 축약어(줄임말)를 소통의 대세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톡에서의 소통 방식처럼 '말하듯 쓰는' 시대, 구어와 문어의 경계가 무너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 이야기 정보 전달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기계적일 정도로 단문화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도 문장의 명제(preposition) 전달을 위한 문장의 정보 구조(informational structure)를 적절히 분절 압축한 단문으로 끊어 번역하였다. 특히 문형상 서술어(V)+주어(S)+목적어(O) 구조의 동사 전치형 구문인 고대 히브리어의 묘미를 살리려면 한국어로는 동사가 앞에 오는 도치형 구문을 번역 장치로 과감히 도입 활용할 필요가 있다.[9] 앞에 예시했던 시편 1:1-2를 다시 비교해 본다.

> 『개역개정』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새번역』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1 복 있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개역개정』은 1, 2절이 한 문장 5개 절로 이어진 장문 구조이다.『새번역』도 1, 2절이 한 문장 5개 절로 되어『개역개정』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 문장 구조에 전혀 현대어체다운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였다.『새번역』이 '-다'체라는 현대어체로 번역하였음에도『구역』,『개역』이 보여 주는 경전

9) '저는 …한 사실에 놀랐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대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것은 …'이라는 통사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라는 문장은 그 뒤에 나올 중요한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표지로서 기능한다. '사람들의 영어 소통 능력은'을 '영어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컸습니다.'와 바로 연결 짓는 대신 '사람들의 영어 실력과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라는 문장을 먼저 말할 수 있다. 이는 'A는 B가 아니라 C'의 논리 구조를 갖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C이며, B는 부정의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A의 속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명제가 들어가게 된다.

체의 압축적 함축미를 가진 장문의 전통에서 자유롭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1, 2절을 마침표 기준 3개 문장으로 끊었다. 다음은 마가복음 1:1, 2를 다시 비교하여 본다.

> 『개역개정』
>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 『새번역』
>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1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 2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개역개정』은 1절이 단문이고, 2절은 인용절을 내포한 1개 문장으로 되었다.『새번역』은 문장 부호를 도입했고 1절은 1개 문장으로 같다. 2절은 인용절에 2개 문장을 내포한 겹 인용 구조로 3절까지 이어지는데 전체는 상위문을 한 문장으로 마쳤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1절은 1개 문장인데 성경 원문의 명사형 종결 구조를 존중해 ‘… 복음의 시작’이라는 명사 종결문으로 번역한 점이 파격적이다. 2절은 문장을 2개로 분할하고 다시 인용문은『새번역』처럼 문장 부호를 도입해 2개 문장으로 하였다.

> 『개역개정』
>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 『새번역』
>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4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5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3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4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 5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3절은 2절처럼 구약 인용구가 이중으로 내포된 겹 인용 구조인데『개역개정』은 문장 부호 구분도 없어 독해가 어렵다.『새번역』은 문장 부호로 구분해 독해가 수월한데 그래도 길어져 3, 4절이 인용절을 포함해 상위 1개 문장이다. 5절은 3개 절을 1개 문장으로 하였다. 반면에『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3절을 2개 문장으로 나누어 인용문도 3개의 절을 내포한 2개 문장화하였다. 4절은 2개 문장, 5절은 2개 문장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문장 수가 많아졌다.

현대 사회는 정보가 많은 사회이다 보니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전달용 IT 도구에 적합하게 정보의 분절화, 단편화(단문화, 축약화)가 필요하고 역설적으로 이는 전통 사회의 구술성을 현대의 정보 사회에서 회복하는 양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4. 담화론적 의의: 높임법 다양화 및 차별 표현 개선

4.1. 높임법 화계(話階)의 다양화[10]

4.1.1. 서사문 종결형의 복합 화계[11]

국어의 종결형에 나타나는 상대 높임법(청자 높임법)은 말이나 글에서

10) 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는 해요체를 설정한 서정수와 성기철의 연구 참고. 서정수,『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서울: 한신문화사, 1984); 성기철,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5). 성경 원문 언어에 없는 높임법을 높임법이 있는 언어에 번역할 때의 문제는 조지윤이 방법론을 다룬 바 있다.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성경원문연구」25 (2009), 127-148. 성경 담화에서 화계에 대한 분석은 성경 번역본을 대조하면서 등장인물 간 대화 유형에 따라 높임법을 분석한 박덕유의 연구도 참고할 수 있다.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성경원문연구」34 (2014), 83-109.

11) 성경의 종결형 특히 '-라'와 '-다'의 담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옥성득, "초기 한글 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1877-1939)",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1993);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평서법 문장 종결형 고찰",「성경원문연구」25 (2009), 171-19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이야기가 전개되는 서사문의 종결형으로 나타나거나 대화문(또는 인용문)의 종결형으로 나타난다. 서사문이든 대화문이든 중세 국어의 종결형은 높임법의 화계(話階)가 3등분 체계인 ① ᄒᆞ쇼셔체, ② ᄒᆞ야쎠체, ③ ᄒᆞ라체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화기 성경 번역체는 ①ᄒᆞ쇼셔체(-나이다, -더이다, -리이다 등)와 ③ᄒᆞ라체(-니라, -더라, -리라, -노라, -이라, -도다, -로다)라는 2대 화계로만 번역되어 단조롭다.

중세 국어 3등분 체계에서 ᄒᆞ쇼셔체는 현대의 하소서체로 남아 있고, ᄒᆞ라체는 현대의 하라체로 남아 있으나[12] 하라체는 분포가 적어 해라체에 포함한다. 중세 국어 3등분 체계가 근대 국어를 거쳐 분화하여 현대 국어의 높임법은 6등분 화계인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게체 – 해라체'라는 격식체와 '해요체 – 해체(반말체)'라는 비격식체로 나뉘어 쓰인다.

『개역개정』에서 대화문이나 인용문의 명령형으로 해라체인 '-아라/어라, -해라(하여라)'보다 하라체인 '-으라, -하라'가 선택된 점을 중시하고 서사문 종결형으로는 '-더라, -니라, -노라'와 같은 옛말체 어법을 지금까지 한국 교회 강단의 대표 성경 문체로 보전한 것을 중시해 『개역개정』에서 쓰인 서사문 종결형의 높임법을 하라체로 부르도록 한다. 이는 『개역개정』이 조선 시대 어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신세대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비판적 근거가 되지만, 반면에 기성세대에게는 오래 익숙한 고전체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100여 년 전 조선의 성경 번역자들은 자연스레 당시의 권위적 문체인 옛말체 하라체(-니라, -더라, -리라, -지라, -(으)라; -도다, -로다, -지어다 등)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소서체(-나이다, -니이다, -니이까, -리이다, -리이까, -소서 등)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당대의 전통이자 언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하라체와 하소서체가 기본인 『개역개정』, 해라체와 하십시오체가 기본인 『새번역』, 하십시오체, 해라체, 해체(반말), 해요체 등이 복합된 변동(가변) 화계를 보여 주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시편 1장에서 『개역개정』의 하라체가 『새번역』의

12) 하라체는 중세 국어의 잔존형으로 오늘날은 명령형에만 남아 있다. 하라체의 전통적 어미인 옛말체 종결형 '-니라, -더라, -리라, -노라, -지라; -(으)냐; -(으)라' 등은 옛말 문법 연구에서는 하라체로 부른다. 하라체는 오늘날 '정부는 각성하라', '정부는 물가를 잡으라', '남으로 오라', '북으로 가라'처럼 구호 표현에 제한적 명령으로 남아서 쓰이고 있다. 이는 해라체인 '정부는 각성하여라(각성해라)', '정부는 물가를 잡아라', '남으로 와라/오너라', '북으로 가라/가거라'와 대비된다. 하라체는 독립 설정하지 않을 때 해라체로 포함해 다룬다. '가라'는 하라체로도 볼 수 있고 '가아라'의 축약으로 보면 해라체로 볼 수 있어 해라체와 하라체가 중화된 것이다.

해라체,『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하십시오체 및 해요체로 대응해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 본다.

> 『개역개정』 - 하라체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하라체)**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하라체)**
> 『새번역』 - 해라체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해라체)**.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해라체)**.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하십시오체, 해요체 복합
> 1 복 **있습니다(하십시오체)**, 그릇된 사람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하십시오체)**. 2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하십시오체)**. 3 물길 곁에 심은 나무 **같지요(해요체)**.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이지요(해요체)**. 무엇을 하든지 **성공합니다(하십시오체)**.

우리는『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서사 종결형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섞어 번역한 것을 복합(=변동, 가변) 화계로 부른다.

4.1.2. 대화문 종결형의 복합 화계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종결형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서사문 종결형뿐만 아니라 대화문의 종결형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대화문에서는 대화자 쌍방의 신분 관계에 따른 높임법의 변화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서사문 종결형을 다루면서 시편을 살펴보았는데 화계를 분석할 때는 서사문 종결형인지 대화문 종결형인지 구분해야 한다. 다음 마가복음에서도 서사문 종결형과 대화문 종결형이 섞여 나와 구분해야 한다. 다음 '→'는 대화 방향이다.

[예수 → 대중] 마가복음 1:14-15
『개역개정』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하라체) 하시더라(하라체)**
『새번역』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해라체)**. 15 "때가 **찼다(해라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해라체)**. **회개하여라(해라체)**. 복음을 **믿어라(해라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14 요한이 잡혀간 뒤에 예수님이 갈릴래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해라체)**. 15 예수님이 **말씀하셨다(해라체)**. "때가 **찼습니다(하십시오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하십시오체)**. **회개하십시오(하십시오체)**! 복음을 **믿으십시오(하십시오체)**!"

『개역개정』은 간접 인용절의 대화문이 하라체 '믿으라'이다. 『새번역』은 직접 인용절 대화문의 종결형이 해라체 '찼다, 왔다, 회개하여라, 믿어라'이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직접 인용절 대화문의 종결형이 '찼습니다 … 믿으십시오'와 같이 모두 하십시오체이다.

[예수 → 제자] 마가복음 1:17
『개역개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하라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하라체) 하시니(하라체)**
『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해라체)**. "나를 **따라오너라(해라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해라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해라체)**. "나를 **뒤따라오세요(해요체)**.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가 되게 해 **드리겠습니다(하십시오체)**."

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개역개정』은 하라체이고, 『새번역』은 해라체이며,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기존 번역본과 달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존중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복합 화계를 보인다. 이는 기존 번역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무리를 향하여 말할 때 하라체나 해라체로 되어 상위자로서 권위적 화계로 보였던 것과 달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도 존중하는 높임법을

써서 권위적으로 비치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한 점이 달라졌다.

> [서기관(율법학자) 상호 대화] 마가복음 2:6-7
> 『개역개정』
>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하라체=현대 하게체) 신성모독이로다(하라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하라체)**
> 『새번역』
> 6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해라체)**?[13]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해라체)**.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하게체)**?' **하였다(해라체)**.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6 이때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명이 거기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따져 보고 **있었다(해라체)**. 7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지(해체)**? 하나님을 **모독하는군(해라체)**!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하게체)**?'

위는 율법학자끼리의 대화인데 『개역개정』의 '말하는가'는 고전 하라체로서 현대 하게체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이로다, 사하겠느냐'도 고전 하라체로 묶을 수 있다. 『새번역』은 '말이냐, 모독하는구나'는 해라체, '있는가'는 하게체로 복합 화계를 보인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말하지'는 해체, '모독하는군'은 해라체, '말인가'는 하게체로 복합 화계를 보인다.

4.2. 장르 문법의 복합 화계: 글의 장르마다 다른 화계

인간이 생성하는 다양한 구어(입말)나 문어(글말)에는 말과 글의 특성이나 소통 방식에 따라 장르(갈래, 양식), 사용 어휘, 사용 문구, 관용적 어법, 내용 구조(머리-본문-마무리), 설명·묘사·논증·서사의 선택 방식 등에서 차이를 가진다. 오늘날도 법률문, 기사문, 보도 자료, 편지, 이메일, SNS 등 수많은 말과 글의 장르에서 우리가 읽고 쓰는 문체는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갖는데 이를 '장르 문법'(genre grammar)이라 부른다.

성경에서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라는 장르의

13) 바로 위 『개역개정』의 막 2:7에 나오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에서 '-느냐'는 『개역개정』이 옛말체 화계이므로 하라체로 처리하지만 『새번역』의 '한단 말이냐?'는 같은 '-냐' 형태이지만 현대어체이므로 해라체로 처리한다.

특성과 40여 성경 기자의 신분과 직업 특성에 따라 성경 66권은 다양한 문체적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동안 나온 기존 번역본은 이러한 장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서사자(敍事者)를 획일적으로 전제하고 번역한 결과라 하겠다. 그 결과『개역개정』의 경우 66권 전부가 서사문 종결형은 하라체로 통일되었고, 대화문에서도 '예수님 – 제자'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 대화 '상위자 – 하위자'의 관계에 따라 중세 국어 옛말체의 화계에 의존해 하소서체와 하라체라는 두 높임법만이 화계에 나타나게 단순화되었다. 그러나『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서사문 종결형이나 대화문 종결형에서 모두 장르 특성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화계를 사용해 복합(변동, 가변) 화계로 번역하였다.

가령『개역개정』에서는 운문체인 시편의 화자가 종결형을 주로 하소서체나 하라체로 하여 산문체인 다른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와 차이가 없어 단조로우나,『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장르 특성을 살려 종결형 화계가 다음 시편 3장에서처럼 다양하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시편 3:1-3
> 1 오, 여호와님, 얼마나 **많은지요(해요체)**, 내 적들이!
>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하십시오체)**, 내게 **맞서네요(해요체)**.
> 2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하십시오체)**, 나를 두고서.
> "그는 하나님한테서 도움받지 **못해(해체)**." 셀라.
> 3 그렇지만 주님이, 오, 여호와님, 나를 감싸 주는 **방패이십니다(하십시오체)**!
> 나의 영광이시고
>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하십시오체).**

'테오필로스'를 수신자로 하는 사도행전부터 바울의 일반서신(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 옥중서신(골로새서, 빌립보서 …), 공동서신(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과 예언서(요한계시록)는 수신자를 높이는 편지 장르의 청자 높임의 화계를 택하여 서사 종결형을 하십시오체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따금 친근하게 해요체를 쓰기도 하였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첫인사 부분] 로마서 1:1-2
> 1 **바울입니다(하십시오체)**.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하십시오체)**.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하십시오체)**.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요한계시록은 하라체로만 나오는 『개역개정』과 달리 하십시오체와 해요체가 섞여 나타난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요한계시록 1:7
> 7 **보십시오(하십시오체)**, 그분이 **오십니다(하십시오체)**, 구름에 둘러싸여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하십시오체)**, 모든 눈이,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그분을 두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하십시오체)**,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렇습니다(하십시오체)**, 아멘!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인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그대, 자네'로 지칭하며 하십시오체가 아닌 하게체 '-네'를 쓰고, 때로는 반말의 해체로 친근하게 '-지'를 써서 이들의 사제 관계를 짐작케 하고 있다.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디모데전서 1:1-2
> 1 **바울이네(하게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네(하게체)**.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지(해체)**. 2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하게체)**.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하게체)**!

따라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장르의 특성에 따라 수신자를 고려해 서사문 종결형의 화계와 대화문 종결형의 화계에 가변, 변동의 복합 화계라는 변화를 주었다.

4.3.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선[14)]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인간의 윤리 도덕을 설정하고 인간의 양심에 본능적으로 새겨지도록 부여하셨기에 만민평등, 남녀평등의 윤리를 실현하는 인권 존중의 교범이다. 성경 번역에서는 『개역개정』 이래 20여 년간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개역개정』에서 차별로 오해되는 표현을 차별적 의미가 사라진 대체 표현

14) 논문 심사평에서 4.3.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선은 내용이 2장 어휘론적 의의에서 다루는 것을 권했으나, 차별 표현의 발신자와 수신자 문제는 사회언어학적 신분에 따른 담화 차원의 문제로 보아 담화론적 의의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으로 번역하려고 힘썼다.[15]

> 마태복음 15:30-31
> 『개역개정』
>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 30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 언어장애인,** 또 다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털썩 내려놓았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그 무리가 놀라워했다. 언어장애인들이 말을 하고, 손이나 발을 잃은 장애인들이 건강해지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걸어 다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위처럼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말 못하는 사람'을 '언어장애인'으로 바꾸었다. 그 밖에 질병 용어도 순화하였다.

간질 → 뇌전증(마 4:24)　　나병 → 심한피부병(마 8:2)
중풍병 → 마비증(마 8:6)　　혈루증 → 출혈병(마 9:20)
꼬부라져 → 척추장애인(눅 13:11)
수종병(水腫病)[16] → 몸 붓는 병(눅 14:2)

질병 용어는 더 어려운 한자어로 고치거나 아니면 쉬운 말로 풀어썼다.

---

15) 성경적 관점에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언어 차별 문제를 다룬 논문은 다음을 참고,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5 (2004), 283-329;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性)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86-108;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9 (2006), 47-68;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140-160; 채은하,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0 (2017), 95-116: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180.

16) 물종기(-腫氣)「명사」『의학』 수종(水腫). 신체의 조직 간격(組織間隔)이나 체강(體腔) 안에 림프액, 장액(漿液) 따위가 많이 괴어 있어 몸이 붓는 병. 신장성, 심장성, 영양 장애성 따위가 있다. =수종.

가령 당사자에게는 차별적, 혐오적으로 비치는 '간질'(癎疾)은 의학 전문용어 '뇌전증'(腦電症)으로, '나병'은 풀어 쓴 '심한피부병'으로 고쳤다. '수종병'은 한자어로 어렵고 '물부징'이란 속어가 있으나 역시 어려워 쉬운 말 '몸 붓는 병'으로 고쳤다.

5. 표기론적 의의: 한글 정서법의 준수와 가독성(可讀性)의 향상

현대의 독서는 당대의 어법에 맞추어야 하므로『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도 '한글 맞춤법'(1988) 규정을 따랐다. 이는『개역개정』(1998) 이래『새번역』(2001)에서도 따른 것이라 당연하다. 현대의 외래어 표기법(1986)은『개역개정』,『새번역』에서 수용하지 않았다.『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개역개정』의 음역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고유 명사들은 외래어 표기법(1986)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따라 기존의 음역 관행을 대폭 현대어법으로 고쳤다.[17]

고린도 → 코린트	두로 → 티레	갈릴리 → 갈릴래아
수리아 → 시리아	애굽 → 이집트	마게도냐 → 마케도니아
에베소 → 에페수스	데살로니가 → 테살로니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고유어 중심 번역을 취하지만 '신'을 현지 풍토에 어울리는 '샌들'로 번역함으로써 외래어라도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에게 이미 익숙한 외래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문장 부호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개역개정』과 달리[18]『새번역』,『공동번역』,『공동개정』처럼 마침표, 쉼표, 느낌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등 문장 부호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각종 시

17) 성경의 음역 표기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 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성경원문연구」11 (2002), 68-89;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성경원문연구」8 (2001), 106-157.

18)『구약전서』(1911)나『셩경개역』(1938)은 동양 한문 고전 경전체의 전형인 세로 붙여쓰기를 보여 주고 문장 부호는 문단 경계표 수준의 O(권표)만 쓰였다. 해방 후 교과서는 가로쓰기가 도입되었으나 신문과 성경은 세로쓰기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컴퓨터,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신문에서 가로쓰기가 채택되어『개역개정』(1998)도 가로쓰기가 채택되었으나 문장 부호는 도입하지 않았다.

간, 요일, 도량형 단위나 수량 단위를 현대인에게 익숙한 미터법 단위로 표시하고 수효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여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인지 효과를 높였다. 그러나 '달란트, 세겔' 등 고대 중동의 도량형 문화 용어는 원문의 단위대로 번역하고 각주에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적도록 하였다.

(1) 아라비아 숫자를 최대한 사용하였다.

(시 90:10) 잘못을 저지르며 우리 사는 기간이 70년이고 힘이 좋으면 80년인데
(마 4:2)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마 14:21)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빼고 남자 어른이 5,000명쯤 이었다.

(2) 도량형, 화폐 단위, 시간과 요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바꾸어 적고 필요시 각주에 원문의 단위를 적어 두기로 했다.

(마 6:27)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센티미터라도 늘일 수 있나요? [각주: 그, '1페퀴스'. 1페퀴스는 1규빗으로 50센티미터쯤]
(눅 16:6) 올리브기름 2,200리터쯤입니다. [각주: 그, '100바트'. 1바트는 22리터쯤]
(마 18:28) 그 다른 종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어요. [각주: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

6. 맺음말

성경 번역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땅에 성육신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 거민들의 언어문화 속에 성육신하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어 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 성경의 말씀이 한국어와 한글의 옷을 입고 한민족에게 성육신하는 일이다.

오늘날 복합 다매체 시대에 맞춘 미디어용 성경이 되도록 총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번역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2021년 12월 발간되었다. 국어학적 특징을 분석하여 보니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1)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에서 새로운 고유어 번역어를 찾아 고유어 중심의 어휘 갱신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져 한국어 번역 성경의 표현 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번제, 소제, 유월절' 등 난해 한자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 '다태우는제물, 곡식제물, 넘는명절' 등 고유어 중심으로 쉽게 개역하였다.

(2) 문장론적 의의: 원문 직역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고유어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쓰는 의역을 하였다. 중문과 복문이 복합된『개역개정』의 줄글체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 단문화하였다. 1문장 50자 16어절 범위의 단문 중심으로 번역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짧은 글 중심의 읽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언어문화에 맞추었다.

(3) 담화론적 의의:『개역개정』이 중세 국어의 하라체(ᄒᆞ라체)와 하소서체(ᄒᆞ쇼셔체)를 기반으로 하는 2대 화계로 단조롭지만,『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서사문 종결형은 해라체나 하십시오체가 기본이지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등의 경우는 장르 특성상 수신자를 고려해 해요체, 해체, 하게체가 도입되었다. 대화문 종결형에서는 이보다 더 풍성하게 등장인물에 따라 화계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장르 특성에 따라 화계가 자유 변동하는 복합 화계를 자유자재로 구현하여 장르 문법의 기반에 충실하였다. 현대의 차별적 언어 표현도 계속 순화해 왔지만 여전히 차별 표현으로 비치는 것은 순화하여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를 배려하였다.

(4) 표기론적 의의: 현대 국어 정서법인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였고 문장 부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데나리온'과 같은 성경 원어의 도량형 단위는 살리되 주석을 달아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개역개정』과 달리 '미터, 리터' 등 현대인에게 익숙한 단위는 직접 현대 도량형을 외래어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아라비아 숫자를 적절히 도입해 시각적 가독성을 높였다.

이러한『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에서의 번역의 변화가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의 신학을 보전하고 때로는 더 심화시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어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어 어휘와 문장과 담화 구조의 확장성을 높이는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의 번역은 실험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도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성경 번역, 한글 성경, 높임법, 장르 문법.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Bible translation, Korean Bible, honorification, genre grammar.

(투고 일자: 2022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김은성, “신문기사의 청소년 언어문화 재현 양상 연구”,「한국초등국어교육」54 (2014), 61-100.

김은성,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 실천의 사례 연구”,「국어교육연구」36 (2015), 383-424.

김창영 외,『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5.

김창영 외,『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20.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민병곤 외,『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6.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15 (2004), 283-329.

박덕유, “한국어 성경 마가복음의 높임법 화계 분석 및 고찰”,「성경원문연구」34 (2014), 83-109.

박동현, “개역한글판 구약전서의 고유 명사 음역 일부 통일 제안”,「성경원문연구」11 (2002), 68-89.

박동현, “개역한글판 히브리어 고유명사 한글 음역 방식과 히브리어 한글 음역 시안”,「성경원문연구」8 (2001), 106-157.

박영환,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국어학적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28 (2011), 226-247.

박영환, “『성경전서 새번역』의 국어학적 연구 —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30 (2012), 121-139.

서정수,『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 한신문화사, 1984.

성기철, “현대 국어 대우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5.

양명희,『200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05.

양정환 외,『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0.

옥성득,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1877-1939)”,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1993.

이영미, “한글 성경의 성(性)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성경원문연구」28 (2011), 86-108.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성경원문연구」19 (2006), 47-68.

양명희, 이정복, 박호관,『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 고등학교 2학년 서울, 대구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 서울: 국립국어원, 2005.

장경희 외,『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2011.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평서법 문장 종결형 고찰”,「성경원문연구」25 (2009),

171-192.
정혜승 외,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심층 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2017.
정혜승, “청소년 언어문화의 특성과 향상 방안”, 「한글」 319 (2018), 135-163.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2009), 127-148.
채은하, “장애인의 시각에서 본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성경원문연구」 30 (2012), 140-160.
채은하, “장애인 호칭의 비교와 대안 연구 — 히브리어 성경, 칠십인역과 한글 공인 번역 성경들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0 (2017), 95-116.
채은하, “한글 공인 성경들의 장애인 호칭과 대안 —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34 (2014), 162-180.
Nippold, M. A., *Language Sampling with Adolescents*, San Diego: Plural Publishing, 2010.

<Abstract>

Korean Linguistic Significance of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NKT NT&Ps)

Hyunsik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ading the Bible written in an old-fashioned style is difficult for the younger generation to read, so it is necessary to translate the Bible into a modern language for the next generation. The New Korean Translation The New Testament and Psalms (hereinafter NKT NT&Ps) was introduced at this time in response to the need of a translated Bible that uses easy native language instead of difficult Sino-Korean words, and fits the story structure of the Bible by utilizing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text) and genre. The significance of the NKT NT&Ps in terms of its lexis, syntax, discourse, and notation is listed in the numerical order as follows:

(1) In pursuit of a new native language translations, native-language-centered translation was thoroughly conducted, and expanded the breadth of expression of the Korean translation Bible.

(2) While respecting the principle of direct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paraphrase was performed with its focus on the native language. The old-fashioned style of writing mixed with compound sentences and complex sentences was avoided, and sentences were cut as short as possible.

(3) The old-fashioned-style of two-level honorification was converted into the six-level, modern language honorification, and it was adjusted according to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each book in the Bible. Discriminatory expressions were avoided and modified.

(4) Modern orthography was followed, and punctuation marks were introduced. Modern measurement systems and Arabic numerals were introduced to improve readability.

The NKT NT&Ps should be viewed as an experimental and positive challenge.